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6.21.(수) 제23-069호

◆ [Focus]

. (IRA)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의견수렴 주요 내용

◆ [What's News]

- . (국제세제) 美 의회, 글로벌 법인 최소세로 인한 세수 영향 분석 공개
- . (전기차) 독일 자동차 3사, 신장 강제노동 연루 혐의로 피소
- . (무역협정) 모디 인도 총리, 미국 국빈 방문에서 다양한 의제 논의 예정
- . (투자제한) EU, TTC 공동성명에 이어 민감기술 해외투자 제한 제안

◆ [Top Headlines] 오늘의 헤드라인

- . 미국, 쿠바 내 스파이 활동에 화웨이 및 ZTE 직원 연루 여부 추적 중
- . 모디 총리의 국빈 방문과 시사점

FOCUS

(IRA)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시행 규정 의견수렴 주요 내용

1. 개요

□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부지침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6.16 까지)

- 재무부는 지난해 입법한 IRA의 EV 세액공제 세부지침(NPRM) 관련 세부지침 확정을 위해 6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6.16)
 - *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문(Notice for Proposed Rulemaking, NPRM)
 - 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입법
 - *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 지급
 - 재무부에서 3.31 발표(4.17 관보 게시)된 세부 지침은 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 요건 △용어 정의 △공정별 가치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 관계자 의견을 60일 간 요청함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NPRM) 주요 내용>

(1) 핵심 광물 요건

-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 광물 가치의 최소 40% 이상('23년 기준)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extract) 또는 처리(process)되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recycle)되어야 한다고 규정
-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를 핵심 광물 범주로 분류

(2) 배터리 부품 요건

-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전체 가치 중 50% 이상('23년)이 북미지역 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 세액공제 인정
- '배터리 부품'의 정의를 '공업, 화학, 물리적 공정을 거친 하나 또는 다수의 부품 및 구성 재료를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으로 함.

(3) 기타

- 세액공제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및 무역협정 체결국(일본 추가)
- EV 세액공제 적격 차량 목록 갱신(FuelEconomy.gov)

[자료: 美 재무부]

2. 재무부에 제출된 의견(Comment) 주요 내용

□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관련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 개진

- 정부, 의회, 기업, 협·단체 등 총 87건의 의견이 서한 형태로 접수
 - 제안된 개별 코멘트에 대한 원문은 링크([REG-120080-22](#))에서 확인 가능함.

(1) 조 맨친 상원의원(Comment from Office of U.S. Senator Joe Manchin)

- 조 맨친 의원은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안된 세부지침(NPRM)이 IRA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며 세 가지 문제 지적
 - 1) 50% 부가가치 산출방식(The 50% of value added test)
: 차량 배터리 보조금의 핵심 광물 요구 사항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새롭고 승인되지 않은 불법 검증과정(new, unauthorized, and unlawful test)”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행정부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지적
 - 2) 구성 재료(Constituent materials) 핵심 광물 범주 분류
: 배터리 '구성 재료'를 보조금의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 대상으로 명시함 따라 음극 분말 제조 등 북미 밖의 배터리 제조 단계도 광물 처리 과정으로 간주, 따라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

▪ 3) 자유무역협정 국가(Free trade agreement countries)

: 기존 미국과의 FTA 체결국 뿐 아니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을 추가했으며, 다른 국가들과 추가 협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통용되는 FTA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 미국 무역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2) 미국 내 지지단체연합(Comment from Public Citizen et al)

* Public Citizen, United Auto Workers and Sierra Club 등 IRA 입법지지 단체 연합

- ‘모호하고 부적절한(vague and inadequate)’ 지침이라고 비판, 광물 조달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나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 요구
 - ‘더럽고 위험한(dirty and dangerous conditions)’ 환경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도 IRA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지적
 -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핵심 광물 협정 관련, 투명하지 못하고 대중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졌으며, “구속력이 없거나 강제할 수 없는(not binding or enforceable)” 노동권 및 환경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

(3) 일본 자동차제조협회(Comment from Jap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 환영하지만 북미 차량 조립 조건 요구 비판
 - 일본 자동차제조협회는 일본 자동차가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 미국-일본 핵심광물협정에 대해 환영 의사 표현
 - 하지만 차량을 북미에서만 조립해야 완전한 혜택이 제공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청정 차량의 보급 및 세액 공제 효과를 감소시킬 것 지적
 - 아울러, 세액 공제 시행 일정도 너무 빨라 기한 내 북미 조립 조건을 맞추기 위한 신규 제조 시설 건설도 어렵다고 지적

(4) 한국 배터리산업협회(Comment from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 IPEF 회원국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를 제안하고 배터리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예측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유연한 접근 방식 요청

- 1) IRA 세부규정 자유무역협정 식별에 관한 의견
: '23년 5월 27일, IPEF 장관 회의에서 타결된 공급망 협정을 언급,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핵심 광물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의 FTA 체결국만으로는 공급망 위험이 우려되므로 FTA 체결국 기준을 IPEF 회원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2) 해외우려국(Foreign Entity of Concern) 관련 의견
: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복잡하고 국제화되어 있는 배터리 공급망의 현실을 고려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 요청, 특히 공급망 조정 및 재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지침 요청
- 3) 일부 용어 및 정의, 해석 관련 의견
: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품목 정의, 범위, 추출 및 가공 단계 분류 기준, 가공 단계의 부가가치 산정방식 등 모호한 부분 명확화 필요

(5) 테슬라(Comment from Tesla)

- 미국 정부의 지침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제외 대상과 관련한 몇 가지 의견 제안
 - 1)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 기존 FTA 체결국 이외에도 잠재적인 미래 무역협정 체결국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무역 협정체결의 어느 단계부터 실제 IRA 혜택으로 인정되는지 추가 지침 제공 필요, 이는 배터리 조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 2) 배터리 부품(Battery Components)
: 향후 기술 변화 및 여러 혁신이 도래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변화와 법 적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
* 배터리 구성 요소의 신규 분류와 새로운 제조 기술에 대한 증분 가치 적용 방식 포함
 - 3) 제외 대상(Excluded Entities)
: '제외 대상' 지침과 핵심 광물 및 배터리부품 공제 자격, 배터리 구성 요소 및 기타 품목 식별 관련 정의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구

3. 현지 반응

□ 재무부 IRA 세액공제 세부시행 규정 관련 의회 동향

-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일본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당시 의회 양원에서 모두 강하게 반발한 바 있음.
 -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비판
 -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역시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의제를 급히 추진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외국에 나눠주고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지적
-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포드자동차 및 제너럴모터스에 중국 자동차 부품,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의존도 축소를 요구할 전망
 - 공화당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배터리에 대한 EV 세액공제 차단 요청
 - 하원 중국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는 지난 4월 테슬라가 상하이에 메가팩 배터리 공장을 열 계획을 밝힌 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 대해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 중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美 재무부(3.31), 연방관보(4.17), Regulations 홈페이지(6.20), 상원에너지위원회(6.12), 폴리티코(6.20), 로이터(6.19) 등

□ [국제세제] 美 의회, 글로벌 법인 최소세로 인한 세수 영향 분석 공개

- (개요) 상·하원 세무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6.20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OECD/G20 국제 조세개혁 합의로 의결한 글로벌 최소세 15% 도입(Pillar 2)에 따른 미국 정부의 세수 영향 분석 보고
- (상세) 글로벌 법인 최소세가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지대 전망
 - '21년 OECD가 주도한 국제 조세개혁 합의에서 세계 137개국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고,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부 과세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국제 조세체계 개편에 합의
 - * 현재 우리나라 포함 EU, 영국, 일본 등은 글로벌 법인 최소세 이행 법제화
 - 동 보고서는 미국이 '25년까지 여타 국가와 함께 글로벌 최소세를 이행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약 565억 달러 상당의 세수 감소 전망
 - 반대로, 타국과 달리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1,222억 달러 세수 감소 예상
- (반응) 현재 정치 양극화로 미국 의회의 적기 제도 도입은 기대 난망
 -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미숙한 협상이 미국 정부의 세수 감소와 기업의 해외 과세 부담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합의 가능성 부인
 - 현지 언론 등은 의회의 정치력 부재로 당장 내년부터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 과세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
 - * OECD/G20 합의는 미이행 국가 기업에도 공통 글로벌 최소세를 적용하는 조항 포함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블룸버그(6.20), 상원금융위(6.20), 월스트리트저널(6.17)

□ [전기차] 독일 자동차 3사, 신장 강제노동 연루 혐의로 피소

- (개요)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신장·위그루 강제노동 연관성 혐의로 독일 국내법 위반 피소 (6.20)
 - 베를린 소재 비영리단체 「유럽 헌법과 인권을 위한 센터」는 독일 자동차 3사의 신장지역 강제노동 연루를 주장하며 고발 조치
 - 올 초 발효된 독일 법에 따르면, 대기업 대상 인권·환경 기준을 강제하고, 위반 시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 2%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 (상세) 중국 대표 배터리 기업 CATL의 강제노동 연루 혐의도 함께 조명
 - 고소 측은 신장지역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에 벌어진 위그루 노동자 사용과 관련한 고강도 수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 BMW, 메르세데스와 거래 중인 신장지역 공급사에 대한 혐의 제기
 - 특히, 작년 신장 공장을 설립한 CATL의 강제노동 이용 가능성 지적
- (참고) 독일 자동차 제조사, CATL과 긴밀한 협력 진행 중
 - 메르세데스-벤츠는 '20년 CATL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기술·부품 수급 중이며, '22년 헝가리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공동 투자 계획 발표
 - BMW도 '22년부터 CATL과 다년 계약을 맺어 배터리 셀 구매 중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파이낸셜타임스(6.20), Mercedes-Benz(보도자료), CATL(보도자료)

□ [무역협정] 모디 인도 총리, 미국 국민 방문에서 다양한 의제 논의 예정

- (개요) 모디 인도 총리 美 국민 방문(6.21-24),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초점
 - 백악관은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국민 방문이 청정에너지, 반도체 및 기술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무역 분야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
- (상세) 미국-인도 간 경협 증진 노력에도, 무역 분쟁 해결은 기대 난망
 -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이번 국민 방문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측
 - 커비는 지난 1월 양국이 낸 무역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 분쟁 현안이 조기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발언
 -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분쟁과 이에 따른 인도의 보복 및 태양 에너지 등과 관련해 양국 간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
- (참고) 양국, 국방과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Indus X” 파트너십 추진
 -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과 인도 간의 국방 및 첨단기술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제거를 목표로 하는 “Indus X” 파트너십 행사를 주최함 (6.21)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자료원 | Politico([6.21](#))

□ [투자제한] EU, TTC 공동성명에 이어 민감기술 해외투자 제한 제안

- (개요) EU 집행위, 중국과 러시아 의식한 민감 기술 해외투자 규제 제안
 - EU집행위가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보 위험을 검토하고, 민감 기술의 보안, 유출 위험을 평가해 기술 수출 및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방안 추진
 -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일본-EU 고위협의회를 인용하는 전략,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기술 보안,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평가
- (상세) 유럽기업의 제3국 투자 및 수출에 대한 집행위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 제안
 - EU 집행위는 20일(화) 발표한 '新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문서에서 일부 첨단기술과 관련한 제3국 투자 규제를 추진하는 방안 제안
 - EU 회원국에서 새로운 전담 전문가 그룹 구성, 위원회와 해외투자로 인한 안보 위험을 검토하고 구조화된 기밀 협력 체제를 구축
 - 新경제안보전략은 민감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차원의 협력과 단결을 강조
 - EU는 연말까지 이중사용기술이 인권 침해, 민군 융합 등에 오용될 위험성을 평가해 양자 컴퓨팅·첨단 반도체·AI 등 투자·수출 통제 기술 목록 채택
 -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부집행위원장, 신전략이 "국가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국인 것을 인정
- (참고) EU 집행위의 수출통제 권한 미정,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 현재 EU의 수출통제는 각 회원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어, 핵심 산업 및 민감 기술의 해외투자 규제 권한이 EU 집행위에 부여될 것인지는 미정
 - EU는 공급망 내 위험 제거 및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계속 구축할 것임을 밝히며 신 경제안보전략 또한 같은 맥락임을 주장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 인사이드트레이드(6.21), 로이터통신(6.19)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U.S. Tracked Huawei, ZTE Workers at Suspected Chinese Spy Sites in Cuba (미국, 쿠바 내 스파이 활동에 대해 화웨이 및 ZTE 직원 추적)</p> <p>미국은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와 ZTE 직원들이 쿠바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스파이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 현재 세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p>
The Washington Post	<p>Modi's U.S. visit sends a big, if quiet, signal to China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이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p> <p>이번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군사, 기술,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 역할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밝혀지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기대</p>
New York Times	<p>In Hosting Modi, Biden Pushes Democracy Concerns to the Background (모디 총리 국빈방문, 미국은 민주주의 문제를 아젠다로 제시)</p> <p>모디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이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아님을 백악관은 밝혔으며, 미국 주요기업은 총 총돌해 자리를 빛냄</p>
Bloomberg	<p>Powell Signals Higher Rates as Lawmakers Press Him on Bank Rules (파월의 금리 인상 신호)</p> <p>파월은 미국 인플레이션율 2%로 고정하기 위해 갈 길이 멀며, 회의 때마다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여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밝혀</p>

* 미국 동부시간 6월 20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6.21(수)	제롬 파월 연준의장 하원청문회(Fed Chair Powell testifies to House Panel)
6.22(목)	6월 2주차 신규 실업수당 신청(Initial jobless claims)
6.23(금)	S&P 글로벌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S&P flash U.S. services PMI)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8	RE100,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2023.06월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2 (2023.6.7)		
코인시-11 (2023.5.8)		